



일본, 2011년도 상반기 무역적자 사상 최대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일본 재무성은 지난 9일 2011년도 상반기(4~9월) 1조 2,517억 엔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무역통계가 적용된 1985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- 재무성이 발표한 ‘2011년도 상반기 국제수지 통계’에 의하면 동 무역수지 적자는 반기 기준으로 리먼쇼크가 발생한 2008년도 하반기 이후 2년 6개월만이며, 전년동기(4조 145억 엔 흑자)에 비해 5조 2,662억 엔 규모의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임.

〈그림 1〉 일본 2011년도 상반기 무역수지 추이



- 무역적자의 배경에는 해외경기 침체, 엔고 현상, 일본 대지진 충격으로 그동안 일본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주요 수출 기업들의 수출 감소와 원전사고 이후 에너지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무역적자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됨.

-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, 전자제품 등의 생산 및 수출 감소가 두드러져 전년동기 대비 1조 217억 엔 (3.2%) 감소한 31조 2,687억 엔에 그친 반면, 수입은 화력발전엔 필요한 액화천연가스(LNG) 수입이 크게 늘면서 32조 5,204억 엔으로 15.0% 증가함.
- 한편, 일본 기업들이 사상 최고 수준의 엔고를 배경으로 해외투자에 적극 나선 덕분에 배당금 유입 등에 따른 소득수지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26.4%(1조 5,354억 엔) 증가한 7조 3,436억 엔을 기록함.
- 이에 따라 무역, 서비스, 소득수지를 전부 합산한 경상수지는 4조 5,196억 엔으로 흑자를 기록하는 했으나 흑자폭은 전년동기 대비 46.8%(3조 9,712억 엔) 감소하였으며, 경상수지 흑자폭은 2010년도 하반기에 이어 2기 연속 감소함.
- 또한, 재무성 관계자는 사상 최고 수준의 엔고와 유럽 및 미국 등의 경기불안 등으로 지난달 중순까지 수출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경상수지 흑자폭이 앞으로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.

(산케이신문, 마이니치신문, 요미우리신문, 로이터통신 11/9 뉴스 종합)